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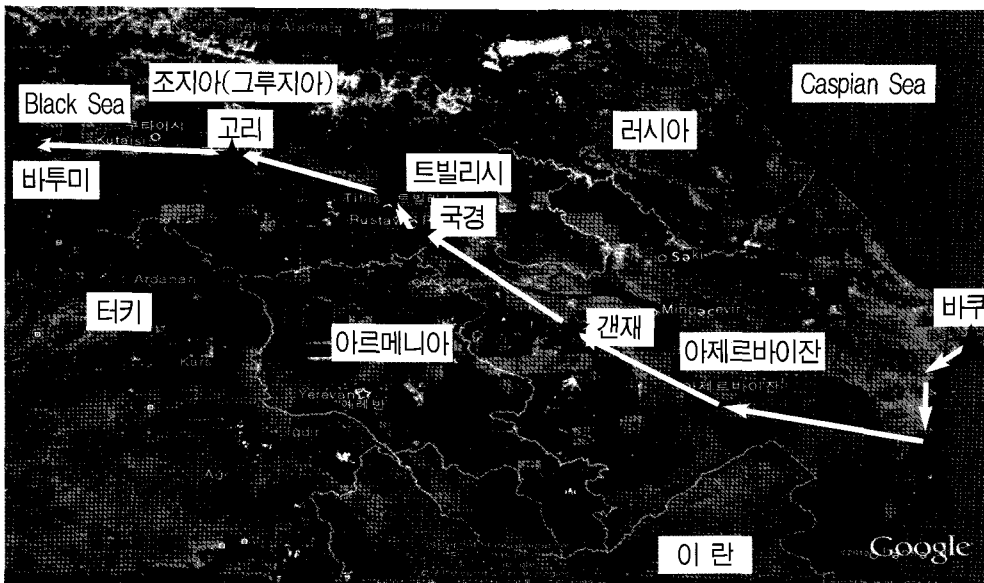
From Caspian Sea to Black Sea

김 현 영
 (hykimmvr@naver.com)
 한국종합기술 수자원부 부사장

국경을 넘어서

아직도 40도 더위가 가시지 않은 2010년 8월 21일 토요일 새벽 3시. 카스피해에서 흑해까지 무려 1,100km의 대장정에 오르기 위해 서둘러 분주함을 떨었다. 바쿠에서 국경까지 약 500km에 자동차로 8시간, 국경 통과에 걸어서 1시간, 국경에서 트빌리시를 거쳐 바

투미까지 600km에 7시간, 함께 이동에만 소요되는 시간이 16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힘든 여행길임을 예상할 수 있지만 “카스피해에서 흑해까지” 영화제 목 같은 명제에 도전해보는 것도 얼마나 환상적인 일인가 생각하니 문지방을 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환갑지난 나에게 아직도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에 조금은 뿌듯해 하면서 말이다.



지난 5월에 간재에서 바쿠까지 자동차로 달린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야간 운전이라 매우 불안한 마음이 가지지 않는다. 다행히 젊은 직원들이 손을 바꿔가며 약 2시간 정도는 잘 달려왔다. 새벽 6시가 되자 졸음을 깨우는 멈춤이 발생했다. 교통경찰의 제지를 받은 것이다.

갓길에 차를 세우자 아제르 경찰이 “도큐먼트!, 도큐먼트!”하고 소리친다.

아마 면허증을 그렇게 부르는 가보다. 그러자 대답이 걸작이다.

“뭐요? 우리가 뭐 잘 못한 것이 있나?” 아예 순한국말이다.

그래도 경찰은 계속 “도큐먼트”라고 반복하고 있다. 이번에는 약간 우리가 양보하는 모양이다.

“What’s the matter?” 영어를 한번 사용해보는 것 같다. 반응이 어떤지 살펴려고.

그러나 아제르 사람들은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경찰은 더욱 그렇다.

이정도 되면 보통 가라고 손짓하기 마련인데 이 친구는 새벽에 첫 마수를 놓치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을 것 같은지 끈질기게 늘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Parallel drive 하던 아제르 사람이 60 마나(한국 돈 약 9만원)를 찢어주고 횡 하니 가벼리자 조금 다급해진 것은 우리다. 원래 속도 위반은 20km에 15만원인데 외국인이고 외교차량에 준해서

6만원으로 깎아 주겠다고 한다. 시간은 없고 약자는 우린데 어찌할 수가 없다.

아제르 경찰은 우리의 80년대와 같다. 그러나 액수가 너무 높다. 그때는 5천원이면 OK였고, 한 고속도로에서 2번 이상 걸리면 넘어가기도 했는데, 여기는 정도가 좀 심하다. 이런 관행은 우리 TV에서 몇 번 방영되고 무인카메라로 딱지가 날아오면 서부터 사라졌고 그런지 15년이 된 것 같다. 아마 아제르는 이런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아 족히 30년은 있어야 사라 질 것 같다.

기나긴 9시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국경에 도착하였다. 차는 국경 근처 공터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국경 검문소에 도착해보니 너무 초라해 보였다. 조지아 입국은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통과하였다. 비자도 요구하진 않았다. 양국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옆에다 크게 신축하는 공사현장이 목격되었다. “아무렴 그래야지...”

조지아 입국절차를 마치고 근처 주차장에 오니 독일제 벤츠 12인승 밴을 준비해서 조지아 가이드(이름이 ‘기울기’다)가 반갑게 맞아준다. 예정시간보다 2시간이나 지체 되어 기다려준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조지아의 수도는 트빌리시이다. 여기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은 벌써 1시를 넘어 배가 고프기도 하여 길을 재촉하지만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차창 밖을 보면 더욱 배가 고프다. 몇 시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제르 - 조지아 국경



국경지대의 반건조지대, 거의 사막이나 다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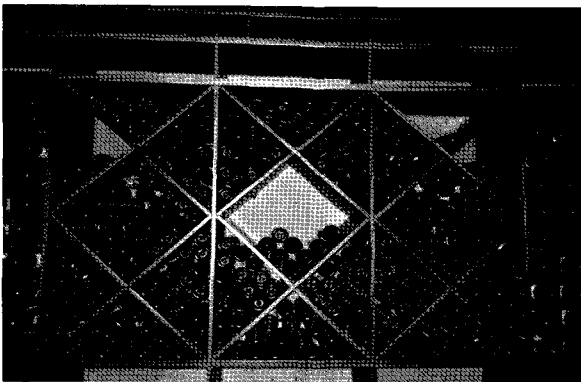
동안 계속 같은 반건조지대의 풍광 때문일 것이다.

식물의 증발산량이 강우량보다 많을 경우 이런 기후대를 반건조지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같은 반건조지대라도 관개용수가 있는 아제르의 바쿠와 이곳의 차이는 이곳을 거의 사막지대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버려진 땅에다 관개용수만 공급하면 옥토가 될 텐데.. “또 이런 쓸데 없는 직업의식이 발동하다니...”

조지아의 포도주 이야기

조지아의 음식은 아제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빵, 케밥(양, 소, 닭, 물고기 등을 숯불에 구운 것), 약초, 야채 등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단지 다른 것은 조지아가 기독교 국가인 관계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다르다. 우리의 만두와 같은 헨겔이 식탁에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다. 조지아 음식이 이 쪽 지방에서는 그런대로 유명한 것 같다. 다른 나라로 많이 팔려가기도 한단다. 그러니깐 음식의 종류는 비슷하지만 조리 방법이 나라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면 된다. 짜게 먹는 것은 아제르나 동일하다. 아마 옛날부터 양고기를 매일 먹으려면 짠 맛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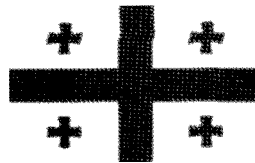
이제 조지아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주 얘기를 해야



식당에 비치된 포도주

했다. 포도주를 조지아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속설이 있다. 소련의 스탈린이 가장 즐겨 마셨다는 포도주도 이곳 산이다. 식당의 한 칸에 사진에서와 같은 포도주 저장고가 있는 것을 보아도 쉽게 짐작이 간다. 기념으로 한 병 마셔보았다. 이름이 “무크스자니아”이다. 포도주 컨너슈어는 아니지만 처음 맛이 약간 신맛이 나다가 목구멍을 넘어가면 약간 짙은 맛과 향이 남아 양고기의 누린내를 없애주는 것이 좋은 포도주임이 틀림 없는 것 같다. 값은 그리 비싼 편이 아니다. 현지 슈퍼에서 사면 약 1만원이면 한 병 살수 있으니 식도락가들의 구미를 끌기에 충분할 것이 분명하다.

조지아는 기독교,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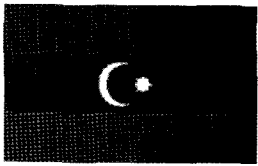


조지아는 70,000km²의 국토면적에 인구는 약 560만 명이 살고 있다. 코카서스 산맥과 터키 사이에 위치한 흑해 연안국이다. 경제

는 구 소련시절에 정해진 것만을 생산하던 공장들이 현재는 거의 모두 경쟁력을 잃어 폐허로 변해있으며 이렇다 할 공산품은 모두 인접 터키에서 수입하고 있다. 다만 이 나라의 경제는 약간의 알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광산이 있으며, 생산력이 높은 토양과 과일, 차, 면화, 포도주 재배에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어 농업 등 1차 관련 산업으로 1인당 국민소득 약 3천 5백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풍부한 수력발전 시설과 잘 교육된 인구가 있지만 내전과 구 소련의 총체적인 경제 붕괴로 인해 경제 침체에 빠져 있다. 종교는 동방정교회 계통으로 국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십자가가 무려 5개나 들어가 있다. 언어는 조지아 말이 있으며 글도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

조지아라는 이름이 이 지구상에 또 하나 있다. 미국의 조지아 주가 그것이다. 현지 가이드한테 두 나라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지를 물어 보았으나 뾰족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조지아는 영어 이름이고 그루지아는 러시아 이름이며 조지아 고유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알아 들을 수 없어 여기에 적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필자는 처음에 조지아인이 미국에 이민 가서 이른 Diaspora인줄 알았으나 정설이 아님을 밝혀 둔다.



이에 비해 아제르바이잔은 약 86,000km²에 인구는 약 850만명이 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도 구 소련 시절 계획경제하의 산업시설

이 경쟁력을 잃고 이렇다 할 공산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8세기부터 채굴한 석유와 가스로 인해 경제가 인접국들 보다 좋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천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종교는 국기에서 보듯이 중앙에 초승달이 있어 이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접 이란과 달리 소련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문화가 많이 퇴색되어 있다. 비근한 예로 라마단 기간 동안 대부분 금식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없으며 음주도 자유로이 하고 있다. 언어는 우리와 같은 우랄알타이어에 속하며 문자는 로마자를 변형해서 쓰고 있다.

목숨 건 질주

이제 트빌리시를 떠나 오늘의 목적지인 흑해의 바투미까지 달려야 한다. 자동차로 대략 6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바투미는 흑해연안의 국제적인 휴양지로서 이름이 높다. 가는 길은 2차선이다. 아제르에서 국경까지가 약 500km에 8시간인데 트빌리시에서 바투미까지 600km를 6시간 걸린다고 하니 '이정도 거리에 이정도 시간이면 고속도로도 좀 버거울 텐데'라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거니 하고 차에 몸을 맡겼다.

이 도로는 터키에서 조지아와 아제르에서 소요되는 거의 모든 상품을 컨테이너 트럭으로 운반하는 간선도로이므로 전 구간이 차량으로 이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운전 관례로는 거의 추월할 틈이나 추월 후 다시 끼어들 간격이 없다고 보면 틀림 없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6시간 동안 수백 번 추월차선을 들락날락하고 있다. 그것도 평균 90에서 100km로 말이다. 어떤 경우에는 추월 차선에 차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곳곳에 소떼들이 왕래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운전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이 나서 자기의 운전 실력을 뽐내고 있다. 처음에는 천당과 지옥을 무수히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고 마음 조렸지만 한두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그런대로 될 대로 대라는 데까지 이르렀다.

나중에 한참 이들의 운전습관을 살펴보니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추월하는 차량에 대해 다른 차량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추월한다고 이해해 준다는 것이다. 추월 선의 반대편 차량은 우선 속도를 줄이고 안되면 갓길에 바짝 붙여 주행하여 추월 차의 안전을 보호해 주며, 추월 후 다시 들어오는 차에 대해 본 차선의 차량도 반대편의 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추월 차선을 확보해 주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중앙선을 포함하여 2차선이 3차선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또 다른 안전장치는 바로 운전자와 차의 성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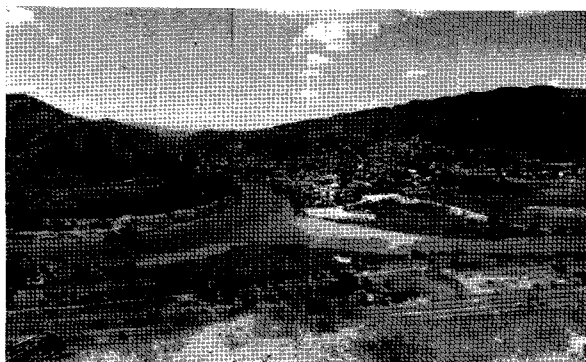


2차선도로가 아닙니다. 본 차선보다 추월차선에 차가 더 많네요

것으로 추측되었다. 운전자는 이 길을 수백번 왕복한 것 같다. 그리고 벤츠차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가 아닌가 생각된다. 순간 가속력과 급감속 능력은 탁월하였다. 이 것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우리 목숨은 벌써 저 세상에 있을 것이고 이 글은 없었을 것이다. 6시간 동안 접촉사고라도 한 건 있으면 한번도 목격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중에 어느덧 기후가 바뀌고 주위 풍광이 바뀌고 있었다. 다시 요약하면 출발지인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는 반건조지대이다. 이것이 국경 근처에서는 산지 건조지대로 바뀌었다가 조지아에서 다시 반건조지대이지만 풍부한 수자원에 의해 주위의 산과 들을 푸르게 만들고 결국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가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지아는 북쪽으로 대 코카서스 산맥이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고 남쪽으로는 소 코카서스 산맥이 있어 양 산맥사이에 이루어진 나라이다. 이제 양 산맥 사이를 지나 소 코카서스 산을 넘어야 흑해의 바투미에 도달하게 된다.

소 코카서스 산으로 들어서자 제법 산에 나무가 울창해지려 하고 있다. 소코카서스 산맥을 넘자 주위 풍광은 해양성기후지대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과 같은 냄새이다. 흑해에서 증발한 습기가 코카서스 산맥을 넘지 못하고 이곳에 비를 뿌리기 때문일 것이다. 산림은 울창해지고 나무들의 잎과



반건조지대만 코카서스 산맥의 풍부한 수자원은 주위 산과 마을을 살만 한데로 만든다

두께가 두꺼워진다. 따라서 관개용수가 없어도 농사는 잘되는 가 보다. 끝없이 이어지는 옥수수 밭과 포도밭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 중 나무가 듬성 듬성한 산지 쪽은 푸른 초지가 있어 소와 양들의 천국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산지를 벗어나자 도로 주위는 소위 가든 팜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수십 킬로 수시간 동안에 걸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넓은 면적에 띄엄띄엄 있는 가든들은 어떤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자동차가 있는 집이 극히 드문데 시장 한 번 가려면 얼마나 불편할까? 한국같이 농촌에도 불상 사나운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나에게는 이해가 안가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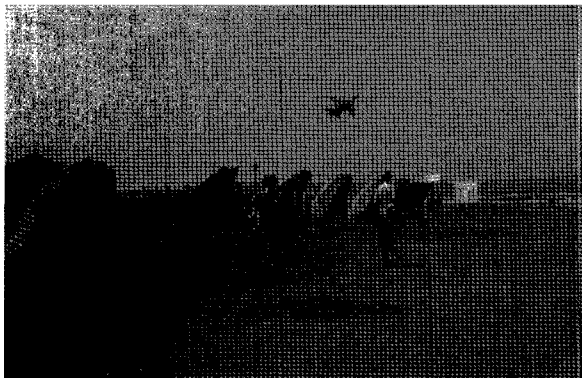
흑해는 왜 검은 색일까?

지루하고 가슴조리며 드디어 6시간 만에 흑해의 바투미 휴양지 코몰레티 해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곳에는 조지아인은 물론이고 인접 터키, 아르메니아인, 러시아인 등이 찾아와 여가를 즐기고 있다. 무려 30km나 되는 해변에 휴양 객들로 분비는 것을 보니 과연 세계적인 곳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흑해라고 해서 바다 물이 검은 색인 줄 알았는데 하얀 것을 보니 어찌해서 생긴 이름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답인 즉 “바닥이 검어서 흑해”라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해변은 모래가 없고 검은 자갈로 뒤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흑해는 카스피해와 같이 내륙 해수호이다. 다만 흑해는 터키의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지중해와 통해 있는 점이 다르다. 또 하나 다른 점을 들자면 카스피해는 유입량보다 증발량이 많아 해수면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현재의 해수면은 (-)25m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맞는 말이다. 이에 비해 흑해는 유입과 증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흑해의 파도는 겁지가 않고 하얗다



아제르바이잔 카스피 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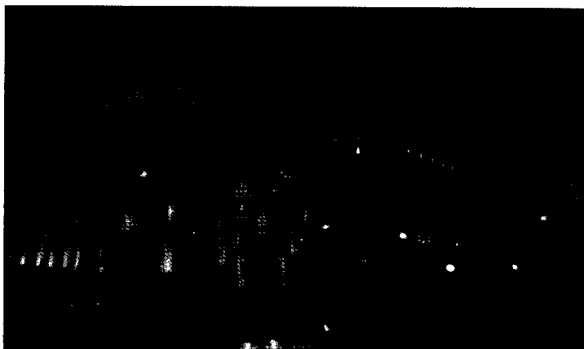
카스피해의 해변은 흑해와 대조적이다. 우선 해변이 자갈이 아니라 모래가 펼쳐져 있다. 해수욕하면서 모래 찜질도 가능하다.

카스피 해수욕장의 차양시설은 참 다양하다. 사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쭈대 판재로 지붕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나무 캐빈, 갈대 원형지붕, 오두막집형, 방갈로식, 비행기 날개형, 우산천막, 코카콜라 포장식 등등 정말 다양하다. 이렇게까지 다양한 차양을 개발하다니. 진즉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창의성이 발휘되었더라면...

바투미시는 조지아의 제2의 도시이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하여 이곳에서 하역되어 내륙으로 운반되는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한국의 현대차도 이곳을 경유하여 아제르 등 내륙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아제르의 바쿠와 카스피해에서 채굴된 석유도 흑해 연안을 통해 서방으로 수출되고 있다. 예전에는

바쿠에서 북쪽의 러시아를 통해 수출하던 것을 러시아가 가끔씩 판지를 거는 바람에 서방과 아제르가 안전한 석유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새 노선을 추가 한 것이다. 그러나 조지아도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2008년 조지아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아직도 고리 근처까지 러시아 군이 주둔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투미 항구의 밤은 화려하다. 1인당 소득이 3천달러 수준인 나라가 이렇게 외식문화가 화려한 줄은 미처 예상 못했다. 이런 식당이 항구를 중심으로 여럿 있다고 한다. 안은 모두 만원이다. 물론 외국에서 방문한 휴양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하여간 화려하다. 그 먼길을 달려온 보람이 있어 오늘 저녁은 Sea Food로 보상받기로 하였다. Lobster와 Crab, 그리고 대하 등 굵침도는 메뉴들로 식욕이 동하였다. 그러나 정작 남아 있는 것은 고등어 튀김과



우려 비슷한 물고기의 튀김 뿐이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입장하는 바람에 물 좋은 것은 다 팔렸다는 것이다. 여행 3락 중에 하나는 물건너 가버렸다.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긴줄은 몰랐다. “바쿠에서 바투미까지”. “카스피 해에서 흑해까지”. 자동차로 장장 18시간, 거리로 1,100km를 달려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하루를 3일 같이 보낸 것이다. 아니 반대로 3일 할 일을 하루에 마친 것이다. 하루 8시간 잠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하는 평상에서 하루 4시간 잠자고, 2시간 휴식하고 18시간을 여행을 한 것이다. 여행에서 배우는 것은 많이 있다. 이번 여행에서는 길게 늘어뜨린 인생도 있지만 이렇게 압축된 인생도 가능하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8월22일 아침이 되자 어제의 소나기는 간데 없이 쾌청하다. 항구 도시는 깨끗하고 정돈이 잘되어 있다. 흑해의 바람이 몰고 온 습기 속에 오존이라도 풍부하게 묻어 있는 걸까? 어제의 여독이 말끔하게 가시는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시 오늘 내로 바쿠까지 돌아갈 생각하니 걱정이 여행의 즐거움을 비집고 들어온다. 많은 관광지를 생략하고 아침에 한곳만 둘러보기로 하였다. 적어도 오후 5시까지는 아제르 국경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관광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빡빡한 일정이 여행을 피곤하게도 하지만 이번 같이 과감히 생략하면 압축된 삶과 같이 압축된 여행이 한편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투미는 조지아의 제2의 도시지만 터키 국경과 이웃하고 있다. 흑해해안을 따라 가면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2개국의 국경을 구경하게 되는 셈이 된다. 지명은 사르피이다. 정작 국경에서는 사진 한번 찍지 못하고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국경은 원래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인가 보다. 국경 인근 폭포가 있어 잠시 구경 삼아 살펴보니 상당 흥미 있는 간판이 눈에 띄었다. 바로

조지아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였던 것이다.

조지아는 기독교 성지의 일부이다

아래 사진에서 흰 선으로 둘러 쌓인 나라가 바로 조지아이고 아래 쪽이 터키이며 윗쪽이 러시아이다. 아래쪽 흰색 선과 흑해가 만나는 곳이 바로 바투미이다.

아제르 국경까지 오후 5시에 도착해야 함으로 서둘러 바투미를 출발하였다. 어제의 역순으로 되돌아가며 또한 번의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다행이 아침에 출발하는 것이라도 사정이 어제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다.

트리리시 근 방을 지나는 중에 고속도로 좌측 봉우리에 옛 수도원이 우뚝 서있는 것이 보인다. 이름하여 Jvris Monastery라 한다. 이 수도원은 약 5세기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바니아 교회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 교회도 이미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안내판이 알려주고 있다.

이에 비해 아제르바이잔의 알바니아 교회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알바니아 정교회는



뒤에 보이는 산비탈을 돌면 터키 땅이다
차 뒤의 십자가도 이색적이다



코카서스 산맥일대인 세키(Seki)까지 진출했지만 아제르바이잔의 코카서스지역은 7세기경의 이슬람의 진출로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 종교적으로 경계를 이룬 것이 바로 양국의 국경 지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터키 이스탄불을 가면 같은 장소에 소피아 교회와 이슬람의 블루 모스크가 마주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스탄불은 양대 종교를 모두 수용하고 타종교의 유산이지만 잘 보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터키가 이슬람국가이면서 다른 이슬람 국가와 같이 정교(政敎)일치 정책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슬람국가 중 가장 경제가 앞서 있고 EU에도 가입하려 노력 중에 있고 그 결과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므로 아제르바이잔도 타종교의

것이더라도 인류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한다면 더 좋은 관광자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필로그

다시 국경을 넘어 밤새 달려 숙소에 도착하니 새벽 2:30이 되었다. 그러니까 꼬박 47시간 30분이 걸린 여행길이 되었다. 무사히 여행을 마쳤다는 안도감에 비록 새벽이지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접한 두 나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고의적으로 대비시키려 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강렬하게 머리에 남아 있어 여기에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산유국과 비산유국이다. 카스피해의 유전은



Jvriv 수도원, 알바니안 교회건축양식이다



아제르 세키지방의 알바니안 교회가 폐허로 변해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산되어 러시아, 조지아, 터키를 통해 서방으로 수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나 생활수준이 비슷하다. 그 나라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볼 때도,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들이 더 잘 살고 있다. 석유에다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입히면 더 못사는 나라가 된다. 석유로 부를 쌓은 나라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골고루 잘살기 어렵다. 불투명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테러단체들의 자금 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석유가 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천만 다행인지 모르겠다.

둘째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국가이다. 이슬람 국가들이 잘사는 나라는 드물다. 그 이유는 정교일치주의 때문인 것 같다. 정치에 종교가 끼어들면 정치는 독재가 된다. 창의적인 사상이 숨쉬기 힘들게 된다. 북한이 그렇다. 정치에 김일성 유일 사상이 지배하니 다른 창의적인 사상이 들어올 틈이 있겠는가? 세계 많은 기독교 국가들(특히 서구의 국가들 중 국가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나라,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등)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 국가 지배 이념에는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미국은 어느 특정 종교를 국교로 하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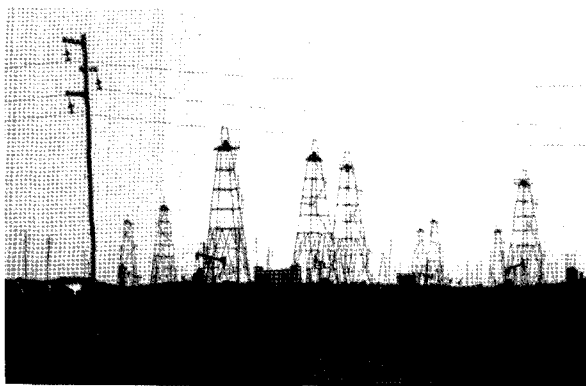
취임 선서 시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국가이다.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잘사는 이유를 일본의 사이토 다카시가 풀이 했는데, “특히 오늘의 미국 자본주의를 있게 한 것은 기독교”라고 서슴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자본주의의 밑바탕에는 성실, 근면, 절약 정신이 있다. 이런 정신은 중세 이후 신교의 칼뱅주의에서 비롯 되었다.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잉여재산을 다른 곳에 탕진하지 않고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절약이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도 기독교 국가에서는 찬란한 꽃을 피웠지만 그 외 국가들에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의 걸만 흉내 내고 그 밑바탕 정신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는 현재 세계 12번째 무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G-20에 속해 있으며,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을 배웠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들의 자본주의 정신을 배웠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일본은 어떤 경우인가?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더 빨리 미국을 배웠다. 비록 기독교는 아니지만 소위 요즘 얘기하는 세계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계화의 정의는 자동적으로 내려지게 된다. 세계화는 미국의 기독교를 밑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카스피해의 아제르바이잔이나 흑해의 조지아나, 어느 코카서스 민족이건, 어느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를 신봉하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된다. 이것이 이번 “카스피 해에서 흑해까지” 여행에서 얻은 결론이다.



카스피 해 유전지대